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중흥토건 평택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현장 추락 사고 件

안전기획팀
'23.02.02. 13:30

□ **시공사** : 중흥토건(주)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8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평택시 가재동 86-5번지)
- 공사기간 : 2020.07 ~2023.03
- 공사규모 : 지하 터널 1,098KM 광케이블 설치

□ **재해내용**

'23.02.01(수) 07시20분경 재해자가 수직구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다 개구부로 추락(5.6m)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개구부 표시가 되지 않고 미고정된 합판(개구부 덮개) 하부의 개구부 미인지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개구부 덮개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출입용 혹은 자재 운반용 개구부는 안전난간대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 개폐형으로 설치
 - 덮개 상부 및 안전망에는 “추락주의”, “개구부주의” 등의 안전표지 부착
- ▷ 상기 재해 사례를 위험성평가 반영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이행 실시

■ 언론 보도자료(KBS 외)

평택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중대재해 조사

입력 2023.02.01 (23:44) | 수정 2023.02.01 (23:52)

사회

0 0 <

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50대 A씨가 슬라브 철근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A씨는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다가 5.6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를 실시했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흥토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5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